**존경하는 판사님**

**지금 제 마음은 하늘과 땅이 맞닿아서 짓누르는 느낌입니다.**

**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은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았고 쓰러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**

**저는 시할머니 시부모님들과 일반적이지 않은 결혼생활을 했었습니다.**

**그 힘든 시간을 견뎌냈던 것은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...**

**아이들 잘 키우고 싶어서... 였습니다.**

**지금 여기서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내 인생이 무엇이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**

**최민옥으로 인해 벌어진 일들로 인해 제 삶이 부질없고 모두 망가지고 있구나 생각합니다.**

**15년이라는 시간동안 최민옥은 저의 가정을 망가뜨렸고 남편과 가족을 남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.**

**딸아이 수술 날, 형편이 피어 처음 외식을 하던 날... 가족과의 시간이 필요할 때마다 남편은 없었습니다.**

**몇년동안 제가 만든 김치를 몰래 가져다 먹고도 미안해 하지 않았고, 2018년 저에게 들켰을 때도 용서를 구하지 않고 숨어있었습니다.**

**저는 그래도 이 가정을 지키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피눈물을 흘리며 용서했었는데, 최민옥은 그동안 듣기로는 400회에 가까운 성관계는 물론 1억에 가까운 돈까지 꾀어내 받아가며 우리 가족을 조롱했고, 이 가정을 깨어 놓았습니다.**

**우리 아이들에게는 어학연수는 고사하고 학비도 제대로 지원해주지 못한 한이 제 게는 있습니다.**

**최민옥 딸 아이의 프랑스 어학연수, 그 아들, 딸의 학비... 등등... 최민옥에게 간 돈의 용도를 들어보면 마음이 사무칩니다.**

**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.**

**지금은 이런 제 상처를 아들, 딸, 사위, 손자까지 알게 되면서,**

**가족 모두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.**

**상간녀 최민옥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.**

**사람이라면 한번쯤 저에게 용서를 구했어야 했던 거 아닐까요?**

**한 번쯤 찾아와서 미안하다고, 혹은 변명이라도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? 말도 안 되는 변명들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최민옥을 벌하여 주십시요.**

**그 어떤 걸로도 무너진 가족의 관계를 보상 받을 수 없겠지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치로 15년 동안 짓밟힌 제 가정을 살펴봐 주십시요.**